

## 기쿠치의 마쓰바야시

기쿠치의 마쓰바야시는 무사 가문인 기쿠치 일족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에서 유래한 전통연희로, 6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에 귀족들이 즐기던 노가쿠의 옛 형태로, 노래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마쓰바야시는 1349 년 기쿠치 일족의 성에서 정월 축하행사로서 처음 상연되었습니다. 이때의 주빈은 규슈에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 파견된 황태자인 가네나가 친왕(懷良, ‘가네요시’라고도 읽음; 1329-1383)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조정은 권력 다툼으로 인해 둘로 남북조로 분열돼 서로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조 고다이오 천황(1288-1339)의 아들인 가네나가는 기쿠치 일족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후 약 10 년 동안 남조의 세력은 규슈 전역을 지배했고, 기쿠치 가문은 황금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기쿠치 가문의 전성기는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마쓰바야시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10 월 13 일에는 기쿠치 신사 가을 대제(大祭)의 일환으로, 가네나가 친왕도 관람하던 전통연희가 지역 보존회 주최로 기쿠치시 중심부의 전통 있는 무대에서 재현됩니다.

기쿠치의 마쓰바야시는 일본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300 년대 후반부터 1400 년대 중반에 걸쳐 간아미와 제아미에 의해 확립된 노(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상연되는 극) 중에서도 더욱 오래된 노의 요소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